

스위스 대외원조 개관¹⁾

I. 스위스 개발원조의 전략적 기초와 새로운 방향

1. 강한 정치적 의지와 빈곤완화

- 스위스는 MDGs와 새천년선언을 개발정책의 이정표로 삼고 빈곤완화를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 세웠음. 스위스의 주요 외교 및 개발정책 목표는 빈곤근절, 인류의 평화공존, 인권존중과 민주주의 확산, 자원보존 및 스위스의 경제적 이권 보호임.
- 스위스는 2004년 2월 국가빈곤완화의 전략, 정책, 실천방안을 세웠으며 이를 통해 MDGs 달성을 위해 노력함.
- 파트너 국가와의 정책대화와 굿거버넌스를 강조함.
- 개발정책, 전략, 국제협력을 위한 적절한 방안 마련을 위해 다른 공여국들과 긴밀히 협조함.

2. 일관된 비전의 필요

- 외교부내의 개발협력청과 경제부 내의 경제사무국, 양기관이 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음.
-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SDC)은 동유럽과의 협력과 인도주의적 원조와 관련한 개발활동의 전체적인 조정을 담당하며, 개발원조예산의 87%를 수행하고 있음.
- 경제사무국(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은 중동부유럽 및 구소련 독립 국가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함.
- 양기관은 각각의 독립적인 전략을 세웠음.
- 개발협력청: Strategy 2010
- 경제사무국: Strategy 2006

1) 본 내용은 DAC의 Peer Review(2005)를 요약·정리한 것임.

□ SDC와 SECO는 일관된 스위스 ODA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세울 필요가 있음. 수원국의 빈곤완화전략과 자국의 개발원조를 일치시킨다는 원칙은 스위스 대외원조의 구조, 메커니즘, 실행기구의 어떤 변화에도 개념적 기초로서 반영됨. 원조일치 원칙은 지역별, 분야별 지원 선택을 명료화시키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흐름에의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

- 서베이와 쓰나미피해 구조와 복구노력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반응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개발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줌.

- 그러나 개발이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몇몇의 의회원들은 스위스가 GNI/ODA 0.7%를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3. 개발협력에 대한 강한 정치적, 국민적 지지 유지

□ SDC-SECO 공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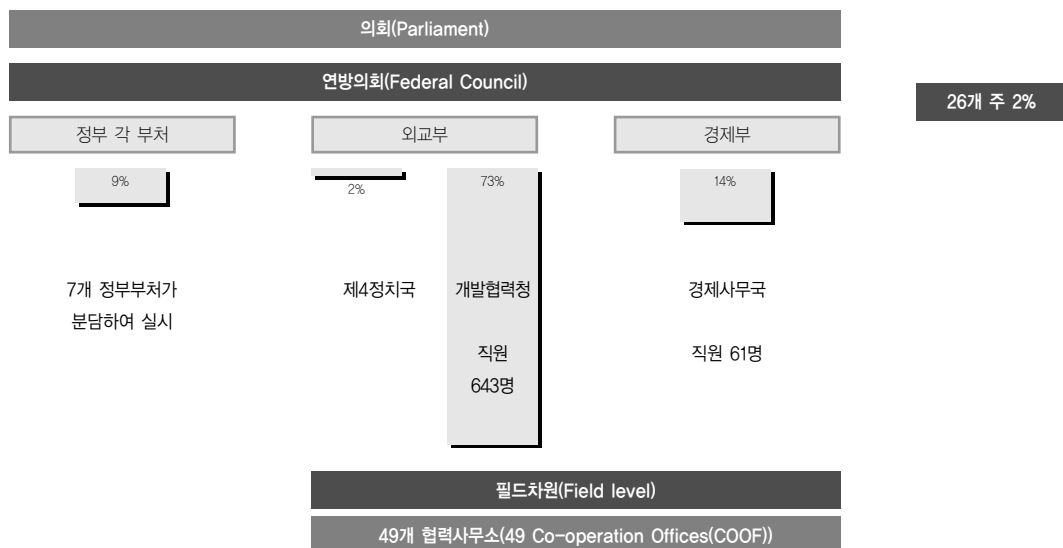
- SDC와 SECO는 국내와 외교정책 사이의 상호관계를 국민들과 의회에 설명함. SDC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DC-SECO 공동 정보정책위원회는 스위스의 정보정책을 조정함.
- 스위스 정책결정자들의 세계빈곤, 안보 및 원조

II. ODA 지원현황

1. ODA 지원현황

- 2003년도 ODA 규모 : US\$ 1,299 백만(ODA/GNI 0.39%)
- 2003년 ODA 총액기준으로 DAC 22개 회원국

〈그림 1〉 스위스 개발협력시스템



중 14위이며, ODA/GNI 비율 기준으로 9위임.

□ 2004년도 ODA 규모: US\$ 1,550 백만(ODA/GNI 0.41%)

- 2004년도 ODA 규모의 증가는 망명자들의 초기 정착비용을 ODA 통계에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위스는 2003년 DAC에서 합의하여 채무변제, 평화구축, 평화유지 활동을 ODA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다른 DAC 회원국들보다 제한적인 해석과 적용을 해왔으나 2005년 5월 망명자들의 초기 정착비용을 ODA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음.
- 2005년 5월 18일 연방위원회는 2006-08년 사이에 ODA 규모는 8% 증가시키기로 결정함.
- 스위스는 2003년 경기침체로 자본재와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빠른 경제회복도 낙관하기 어려우나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함.

2. ODA 세부내역

1) ODA 규모: US\$ 1,299백만(2003)

□ 양자간 ODA: US\$ 945백만

□ 다자간 ODA: US\$ 355백만

- 스위스의 양자간 ODA 비율은 DAC 회원국의

평균 양자간 ODA비율(76%)과 비슷함.

- ODA의 70%는 SDC, 14%는 SECO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부 각 부처에 집행하고 있음.
- 동유럽과 구소련 독립국들, 이른바 시장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양 기관이 동일하게 분담하여 집행하고 있음.

2)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 SDC는 28개국을 원조하고 있으며 9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17개 남반구 개도국, 11개 동유럽국가 혹은 구소련 독립국

□ SECO는 27개국에 활동하고 있음.

- 15개 남반구 개도국, 12개 동유럽국가 혹은 구소련 독립국

□ 스위스는 다음을 고려하고 수원국을 선별함.

- 스위스의 개발원조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시
- 다른 공여국들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
- 양자관계의 역사가 있는 국가
- 환경과 젠더문제와 같은 가치를 공유
-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처럼 다른 공여국들로부터 참여를 요청받을 시

□ 최근 스위스의 원조는 난민정착에 관련한 이주문제에 중요해지고 있음.

□ 정부,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어려운 나라의 개발원조는 회의적임.

- 취약국가(Fragile states) 지원은 해당국가의 상

〈스위스 연도별 ODA 및 세부내역 추이〉

(단위: US\$백만)

	'87~'88	'92~'93	'99	'00	'01	'02	'03
ODA	582	966	984	890	908	939	1,299
- 양자	417	656	732	627	644	765	945
- 다자	165	310	252	263	263	174	355
ODA/GNI	0.31	0.39	0.35	0.34	0.34	0.32	0.39

〈2002~2003년도 상위 10대 수원국 지원 규모 및 점유율〉

(단위: US\$백만)

순위	국명	지원규모 (2002~03년 평균)	총 ODA 대비 점유율 (2002~03 평균)
1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37	7
2	인도	22	4
3	탄자니아	21	4
4	모잠비크	20	4
5	콩고민주공화국	17	4
6	부르키나 파소	17	3
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4	3
8	네팔	13	3
9	중국	13	3
10	아프가니스탄	13	3
합계		187	38

황이 진전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비전이 없다면

스위스의 장기개발원조는 연기됨.

□ 수원국의 수는 다소 많은 편이며 원조가 흩어져 있음.

–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형태의 원조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3) 소득 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 최빈개도국에 집중적 지원

– 1999년과 2003년 사이 평균 39.6%를 최빈개도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지역	1999	2001	2003
사하라이북 아프리카	31	32	3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	1	2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18	21	21
극동아시아	6	8	7
북중미	7	4	5
남미	7	9	9
중동	3	3	4
오세아니아	–	–	–
유럽	25	22	16
합계	100	100	100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최빈개도국 (LDCs)	38	39	42
기타저소득국 (Other LICs)	16	20	21
중저소득국 (LMICs)	45	39	36
고중소득국 (UMICs)	1	2	1
고소득국 (HICs)	–	–	–
MADCT ¹⁾	–	–	–
합 계	100	100	100

주1) MADCT: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동 국가에 대한 지원은 OA(Official Aid)로 분류.)

〈상위 10대 수원국 추이 및 총 ODA 대비 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순위	국명 (1982~83)	%	국명 (1992~93)	%	국명(2002~03)	%
1	인도	7	인도	6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7
2	인도네시아	6	모잠비크	5	인도	4
3	구 유고슬라비아	5	탄자니아	5	탄자니아	4
4	탄자니아	4	볼리비아	4	모잠비크	4
5	모잠비크	4	방글라데시	4	콩고	4
6	마다가스카	4	네팔	3	부르키나 파소	3
7	요르단	4	베트남	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
8	방글라데시	4	남아프리카	3	네팔	3
9	르완다	4	페루	3	중국	3
10	파키스탄	3	부르키나 파소	3	아프가니스탄	3
		45		39		38

국에 지원하였으며 이는 DAC 평균인 29.2%를 상회함.

-아프리카가 주요 수원지역이며 2003년에는 대 아프리카 ODA가 37%였음. 이는 1998년 41%보다 줄어든 것이며 DAC 평균 40%보다 낮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지원이 36%로 DAC 평균 35%보다 높음.

□ 스위스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스위스가 개발원조의 목적으로 명시한 빈곤근절을 위한 것임.

4) 분야별 지원현황

□ 각 수원국별 3개 이하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장려함.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어떻게 “분야”를 정의하느냐, 협력기구들의 역량, 수원국의 요청과 이미 실시하고 있는 활동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 등에 따라 광범위하게 해석됨. 따라서 우선지원분야(overlapping priorities)가 중복되는 일이 많음.

□ 다자간 원조 UN기구중 15개 기구가 스위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몇몇 기구에는 소액의 지원이 이루어짐.

〈2003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단위:%)

분 야		2003년
사회 및 행정 인프라 ¹⁾ (Soc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교육(기초교육)	4.1(1.4)
	보건(기초보건) ²⁾	3.0(2.7)
	인구	0.2
	식수 및 위생	3.7
	정부 및 시민사회	8.6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1.6
소 계		21.2
경제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교통 및 통신	1.8
	에너지	1.6
	기타	5.4
소 계		8.8
생산 (Production)	농업	6.5
	제조업, 광업 및 건축	3.5
	무역 및 관광	1.3
소 계		11.3
다부문(Multisector)		20.0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3.9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 ³⁾		3.9
긴급원조(Emergency aid)		16.6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3.0
기타(Unspecified)		11.2
합 계		100

주 1) 학생 및 연수생 포함

2) 인구 및 생식보건

3) 비ODA 부채탕감 포함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19

〈분야별 지원실적 추이〉

(단위:%)

지원년도	1982~83	2002~03
사회/행정 인프라	20.3	19.6
경제인프라	2.1	9.4
농업	23.0	5.3
산업/기타생산	31.4	4.0
물자/프로그램지원	8.9	5.1
긴급지원	11.2	17.7
기타	3.1	36.8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18

Ⅲ. 주요 지원분야 및 분야별 우선순위

1. 우선순위관련 경향 - 주요 지원분야 중복의 위험

□ SDC의 Strategy 2010과 SECO의 Strategy 2006
는 우선 지원분야의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Strategy 2010의 5가지 주요 주제

- 위기에방과 관리

- 굿거버넌스
 - 수입창출(income generation)과 취업
 - 사회정의와 개발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 ※ SDC의 Strategy 2010는 외교부의 “외교정책보고서 2000”에 기초를 두고 있음.

〈스위스 외교정책 목표〉

스위스 외교정책 목표	→ SDC 개발정책 주제
1. 안보와 평화의 증진	→ 위기예방과 관리
2.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증진	→ 굿거버넌스
3. 번영의 증진	→ 수입창출과 취업
4. 사회통합의 증진	→ 사회정의와 개발
5. 환경보존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 Strategy 2006의 5가지 주제

- 시장중심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 수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 굿거버넌스
- 스위스 및 수원국들의 민간자원 동원
- 다자 개발은행에서 스위스의 입지 강화

□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인해 지원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2. 빈곤완화와 MDGs

- 스위스 5대 외교전략 목표중 하나로 빈곤완화를 명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SDC와 SECO는 빈곤완화가 양 기관의 중요한 목적임을 명확히 함.
- MDGs와 새천년선언을 개발정책의 이정표로 삼고 있음. 그러나 SDC의 지원 중 상당부분이 거버넌스

이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MDGs가 스위스의 대외원조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나타냄.

□ 빈곤의 젠더측면에 관심을 가짐 (Gender dimension of poverty).

– 빈곤완화 정책에 젠더측면은 SDC의 양자간 다자간 지원에 모두 반영됨. 모든 지원활동은 체계적인 젠더 분석(Gender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짐.

– SECO는 젠더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동료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베트남에서의 SECO의 활동 중 젠더 측면을 고려한 것은 없었음. 수원국의 소액신용과 무역 분야에서 70%는 여성임을 인지하고 보다 젠더 측면을 고려한 접근을 시도하여야 하며 동 분야 대한 적절한 자원배정이 이루어져야 함.

– SECO의 향후 지원활동은 젠더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예) • 예산지원 프로그램에서 성적인 관점의 분석과 적용

- 경제변환의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분석
- 인프라구축 프로젝트에서 여성의 욕구 사정

– SDC와 SECO는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조사, 자료수집 단계에서 젠더가 고려되도록 해야 함. 동시에 지원활동의 결과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해야 함.

□ 젠더라는 교차사안은 제4정치국의 업무에도 통합되어야 함.

– 인신매매와 같은 여성의 인권에 관련한 이슈는 다자적 혹은 양자적 채널을 통해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함.

3. 민간부문의 발달과 거버넌스

1) 민간부문의 발달

- 건전한 민간부문의 발달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완화에 핵심적인 요소임.
- SDC와 SECO는 민간분야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서로 보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SECO는 정부의 빈곤완화전략을 지원하고 성장 중심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SDC는 빈곤선 아래에 있고 성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은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무역지원

- 스위스는 수출지향적인 경제모델로서 개발협력분야에서도 무역을 지원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형태로 자리잡아왔음.
- 무역지원에 대한 스위스의 접근 방식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SECO는 도하개발아젠다 이후 무역관련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증가시키고 기술표준, 정부조달, 경쟁정책, 지적재산관련 프로그램들을 실시해옴.
- 개도국들이 WTO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리서치와 분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개도국의 협상대표들(delegates)을 지원하기도 함.

3) 투자촉진

- 투자촉진 프로그램은 기존의 OECD 국가들로부터

FDI를 유치하는 방법에서 수원국내 민간자본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음.

- 1997년 투자촉진기구(Swiss Organization for Facilitating Investments, SOFI)를 설립하여 개도국과 체제전환국가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SOFI는 민간건설팅회사와 SECO의 합작벤처로서, 신흥시장에 관심이 있는 스위스와 OECD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과 매치메이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그밖에 SOFI는 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하고,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이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4) 금융부문의 발달

- 스위스는 민간금융재원의 관리에 있어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고 있음. 2001년 개발협력분야 전략에 따르면, 스위스는 세계 자본의 흐름을 통한 혜택에서 배제된 저소득국, 저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ies), 이미 상당한 민간자본의 유입이 있으나 금융부문이 불안정한 중소득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전통적으로 스위스가 강점을 지닌 금융부문에 대해 스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목적을 가지고 개도국과 협력하고 있음.
-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발달과 거시경제환경과 금융기구의 역량배양
- 다자적, 양자적 협력을 통한 국제금융구조의 안정화

- 양자적 차원에서 수원국의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협력부문에 원조를 실시하고 있음.
- 다자적 차원에서는 WB, IMF, 그 밖의 투자그룹과 함께 SECO가 Financial Reform and Strengthening Initiative(FIRST)를 구성하여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의 금융부문의 발달과 다양화를 촉진하고 성장과 빈곤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4. 거버넌스

- 스위스가 거버넌스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은 외교정책의 목표에서 드러나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
- SDC는 거버넌스를 “경제, 정치, 행정 기관이 한 국가내의 모든 레벨에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정치적인 접근을 시도함.
 - 스위스는 중립주의 국가로서 행정, 선거시스템을 합리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법률시스템의 변화, 공공재와 서비스의 공급 및 정보접근성의 향상에도 관여함.
- 전체적인 패키지 형식의 거버넌스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2) 스위스 거버넌스 지원 패키지



IV. 정책일관성

1. 정책일관성에 관련한 정부부처, 기구간의 협력

- 정부부처간 정책조화는 부처사이의 위원회인 IKEZ에 의해 이루어짐. 동 위원회는 개발과 연방행정부의 다른 분야 즉, 법, 국방, 환경 등의 분야 사이에 걸쳐 있는 이슈들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함.
 - 동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은 없음.
 - 그러나 행정부내에서 토의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구임.
- IKEZ 외에도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함.
 - 외교문제를 토의하는 정부부처간 워킹그룹과 더 구체적인 이슈들을 토의하는 소규모 그룹이 있음.
- 농산물 무역, 자본유출, 수출신용 등의 문제에 대해 개발관점을 소개함.
 - 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스위스가 개발분야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요구됨. 다른 정부부처들도 개발정책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 중견관리자급에서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됨.

2. 분야별 개발정책의 일관성 강화

- 도하라운드에서 스위스는 공정하고 시장중심적인 농산물 무역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임을 재차 확정함. “제로관세, 제로쿼터”라는 가치를 내걸고 2002년부터 서서히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를 폐지해나가고 있음. 또한 식료품 산업

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고 우유 쿼터를 2006~09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결정함.

- 그러나 여전히 농업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이 GDP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수입농산물은 국내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높은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로관세, 제로쿼터” 정책의 일괄 적용은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음.
- 돈세탁에 대한 금융조치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나이지리아, 페루 등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해당 국가로 되돌려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V. 개발원조 조직 및 관리

1. 전반적인 사항

- 스위스 개발원조정책은 전반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직원들의 헌신도와 전문성은 상당한 수준이며 수원국내에서도 정부 및 지방정부와 신뢰, 상호존중에 입각하여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음.
- 파트너들과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NGO 및 민간분야와도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음.
- SDC는 직접적인 양자간 원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프로그램과 다른 스위스 및 국제원조기구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분쟁예방, 민주주의로의 전환, 거버넌스, 환경 분야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밖에 정책대화, 프로젝트, 분야별 지원, 역량강화와 같은 기술 협력 등을 타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함. 동 기관
- 은 개인, NGO, 공공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음.
- SECO는 경제적, 무역관련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거시경제이슈 (예산지원, 부채, 금융부문개발), 투자촉진, 무역, 기초 인프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스위스내 혹은 파트너국의 민간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2. SDC

1)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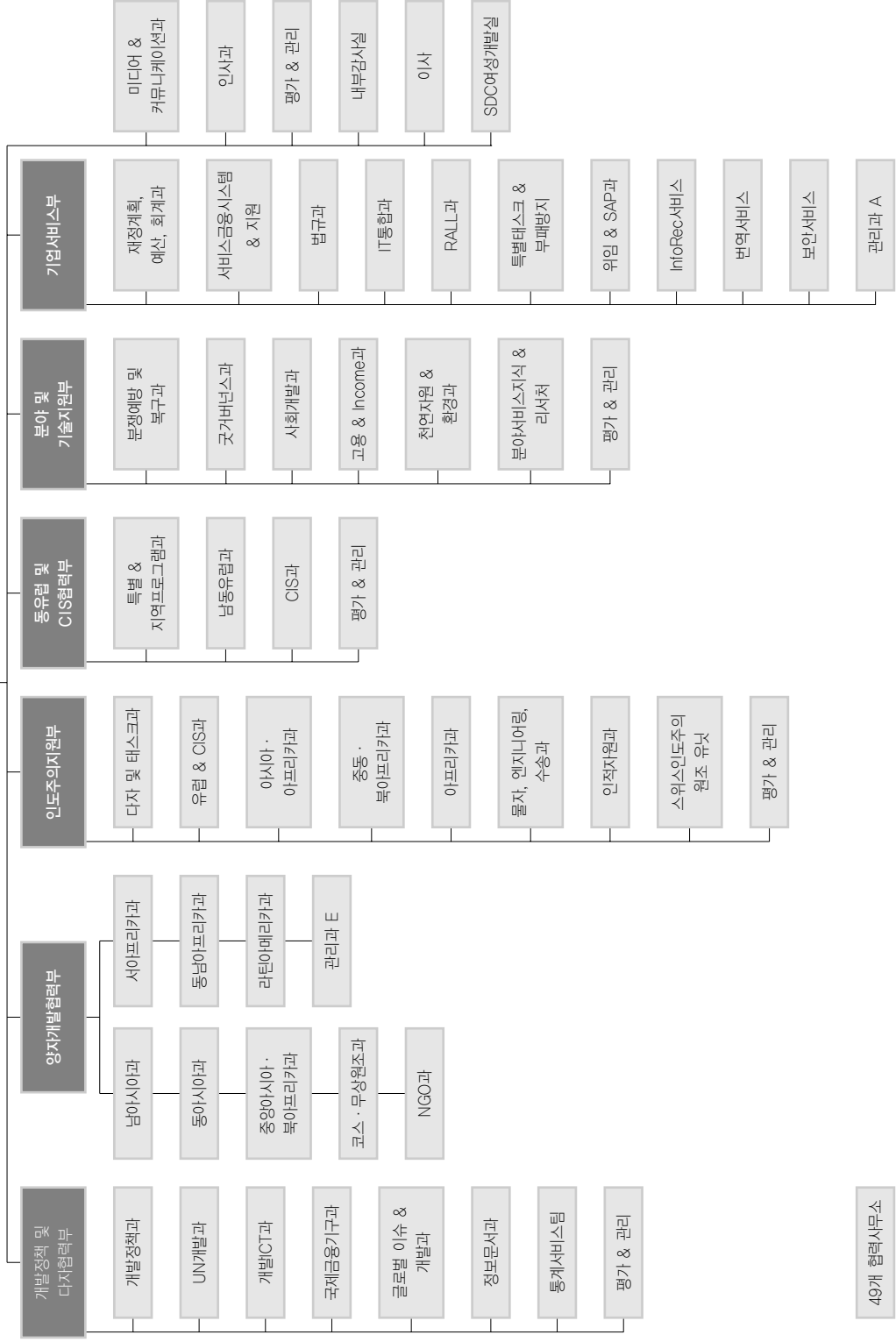
- 6개부(department), 40여개의 과(division)로 구성된 다소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각 부서간 협의과정이 느린 경향이 있음. 권한이양이 가속화되고 SECO와 협력이 증가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체적인 행정적 부담이 경감함에 따라 SDC는 구조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인적자원 관리

- 인적자원관리는 유연하나 직원의 이동성은 제한적임.
 - 총 직원수 : 643명
 - 본부: 467명
 - 해외사무소 : 176명
 - 현지 채용 인원 : 1,150명
 - 해외사무소 채용인원 : 770명
 - 프로젝트 관련 SDC 계약 : 380명
- 평균 7년 재직하며 203명은 파트타임으로 일함.
- 전체직원의 49%가 여성이며, 여직원 중 30%는 관리직(Management position)임. SDC내에 젠더 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의 젠더관련 교

〈SDC 조직체계〉

개발협력청장
개발협력부장관



49개 협력사무소

육을 실시함.

- SDC 직원들의 이동성은 다소 제한적임. 그러나 “Vamos”라는 인적자원정책은 직원들이 본부와 해외사무소 간의 순환근무를 권장함. 그러나 해외 사무소 근무는 순수한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한 국가내에 7년이상 머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 이외에도 본부내에서 부서를 옮기거나 국제 기구파견, NGO 및 민간부문 파견도 장려됨.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SDC와 SECO간의 직원교류도 실시되고 있음.

3)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 지난 동료평가에서 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 되었음. 평가시스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OECD/DAC 기준에 부합하도록 SDC를 개편하고 있음.
- 평가&관리과는 각 부에 설치하여 직접적인 관리와 독립성을 확보함은 물론 각 부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토록 함.
 - 평가&관리과의 역할
 -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데이터 수집
 - 조직의 학습과 책임을 위해 독립적 평가 실시
 - 프로젝트의 공동 기획, 실행, 모니터링, 자체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 일정 관리(Project cycle management)
 -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험학습을 향상시킴.
- 평가의 세가지 종류: 독립평가, 외부평가, 외부리뷰

- 독립평가 (년 2~5회): 각부서간의 이해관계의 전략적 이슈와 정책, 국별 프로그램 등을 평가함. SDC의 심의위원회는 평가 주제를 선정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공개할지 결정함. 평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SDC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자를 선택함. 평가주제가 SDC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일인 경우 평가팀 내 한명을 SDC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선정함. 중견급 관리자들이 평가결과를 회람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외부평가(년 5~10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과 가능한 대안들을 사정하고 지식을 축적함.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실시됨.

- 외부리뷰: 프로젝트 일정관리(PCM) 맥락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리뷰함. 본부 혹은 해외사무소의 사업 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실시됨.

- 평가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 SDC는 유능하고 독립적인 평가자들을 기용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디자인, 실행, 효과에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평가에 끌어들이며, SDC의 평가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정책결정과 실질적인 기획과 실행사이의 격차(gap)를 줄임.

□ 2002~3년간 SDC는 7회의 독립평가, 42회의 외부평가, 117회의 외부리뷰를 계획하였음. 외부평가와 외부리뷰를 비용효과면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평가주제의 선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내부 감사는 매 3년마다 우선지원국가에서의

SDC의 사업수행실적과 비용효과를 사정함.

3. SECO

1) 인적자원관리

- SECO의 경제개발협력부에 57명의 직원이 있음 (공석: 4개).
- 35%의 직원이 파트타임으로 일함.
- 평균재직기간: 4년
- 여성비율: 51%
- 직원 이동성
 - 5명의 직원이 금융기관으로 임시파견됨. 현재 EBRD, IFC, WB에 1명씩 파견근무 중임.
 - SDC와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SECO 직원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음. 8명의 전 SECO 직원이 외교부 계약을 통해 SDC 해외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3명이 대사관에 설치된 비즈니스 허브에서 일하고 있음.
 - 2001년 외교부와 경제부 사이의 합의에 의해 5명의 외교부직원이 SECO에서 파견근무 중이며 (SDC 직원은 제외됨), SECO는 외교부에 12명의 직원을 파견함. 파견된 직원들의 업무는 개발협력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은 아님.

2)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 관리감독은 SECO내 독립적인 부서임. 자체평가, 외부평가 혹은 독립평가 방식으로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함. 년평균 25회의 평가를 실시하며 이중 공동평가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내부 과정보고(process report)나

외부 중간리뷰를 통해 모니터링함.

- 질보장(quality assurance) 관리 시스템을 2000년에 확립하여 SECO의 사업을 개선시키고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을 의사결정과정에 통합시키고 있음. SECO의 Strategy 2006의 통합적 모니터링 도구로서, Strategic Assessment and Review(STAR)를 만들어 이를 사업전반에 적용하고 있음. 매년 STAR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활용함.

3. 원조조화와 일치에 대한 SDC-SECO 공동 접근

- 양 기관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메커니즘
 - SDC청장과 SECO 국장이 참석하는 위원회
 - 4개의 공동위원회
 - 개도국위원회
 - 시장체제전환국위원회
 - 다자협력위원회
 - 정보정책위원회
- 그러나 양 기관의 커뮤니케이션과 조화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VI. DAC의 주요 권고사항

- 전체적인 ODA 시스템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략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함.
- SDC와 SECO는 효율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중점지원국가의 수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포괄적인 외교정책과 빈곤국가 특히, 취약국가를 위한 정책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함.
- 스위스의 비교우위, 효과성, 빈곤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요 지원 국가, 지역 및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해야 함.
- 개발정책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들을 강화하고 연방정부가 개발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함. 행정부와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그룹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함.
- 국제무역시스템에 대한 스위스의 지지를 바탕으로 도하라운드에서 개발중심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농업 보조금과 관세인상 이슈의 해결에 앞장서야 함.
- 불법획득자금을 해당 개도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에 스위스의 경험을 알려야 할 것임.

- 자본도피(capital flight)의 문제와 원인,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위스는 국제사회에 이슈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 스위스 개발협력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직에 대해 재고하고 특히 해외사무소 등에서 원조의 효과성과 빈곤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시켜야 함. SDC와 SECO의 국제기구관련 서비스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스위스의 평가문화는 자국의 지원이 얼마나 빈곤경감효과를 보이는지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ODA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주의 원조에 배분되는 자원도 함께 증가하여야 함.

〈SECO 조직체계〉

